

研究報告書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200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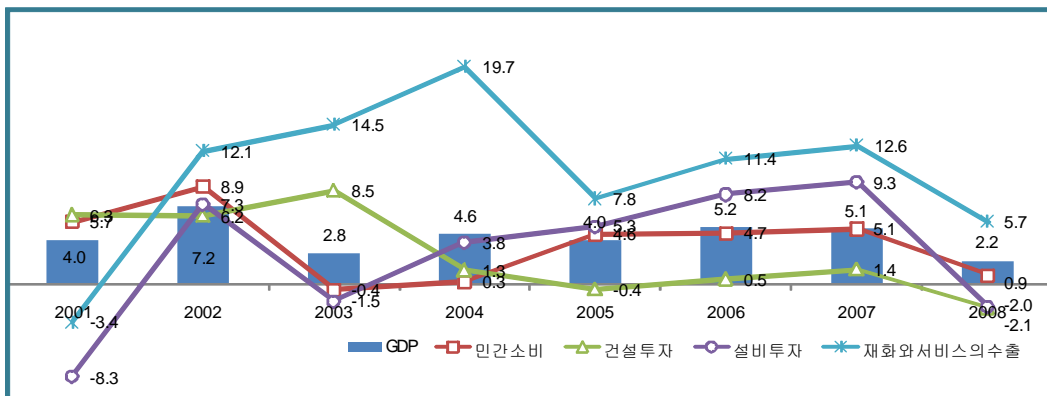
I. 내수부문 침체

경제성장률을 밀도는 내수 성장률

□ 2000년 들어서면서 우리경제는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경제는 과거 70~80년대의 7~8% 고성장에서 벗어나 2000년대 들어서서는 4%대로 떨어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은 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우리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수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그림1> 지출부문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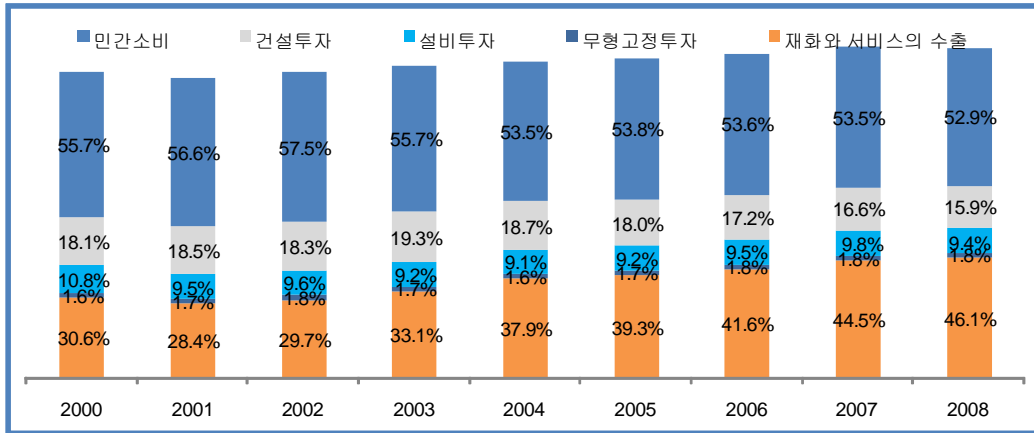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내수비중 감소속도,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 우리나라의 내수비중 감소속도 : 2000년 86.5%→ 2008년 79.9%로 축소

- 민간소비, 총고정자본형성(설비투자, 건설투자, 무형자산) 등 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86.5%를 차지함
- 그러나 지난 2008년 내수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9%로 축소

<그림2> 경제부문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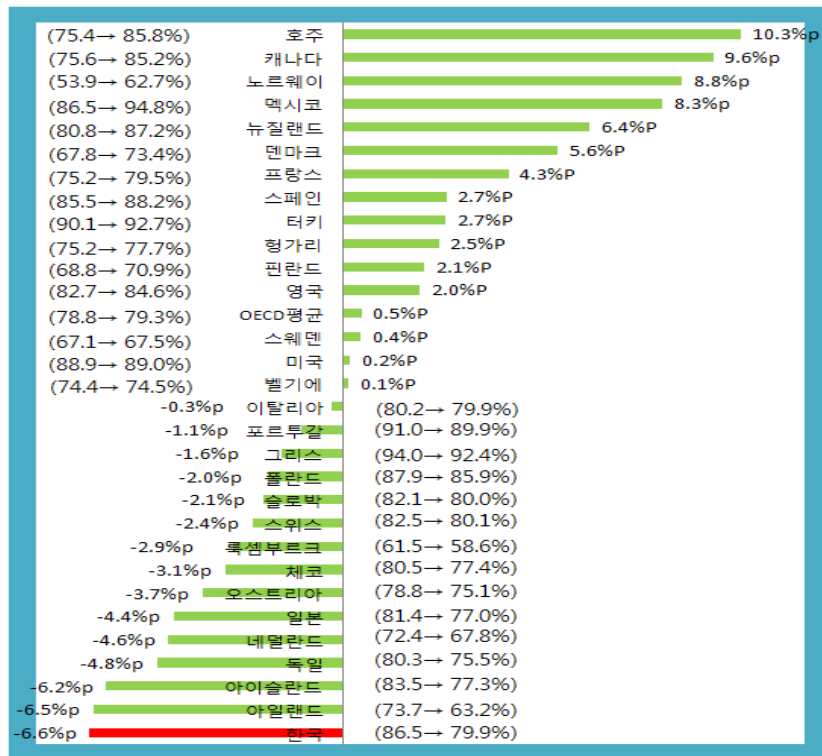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내수비중은 확대

- OECD 국가의 내수비중¹⁾은 2000년 평균 78.8%에서 2008년 79.3%로 확대

<그림3> OECD 국가 내수비중 변동폭(2000년→2008년)



* 자료 : OECD(<http://stats.oecd.org>)²⁾

1) 내수비중 = (민간소비+ 총고정자본형성)/GDP. OECD 국가의 내수비중은 30개국의 내수비중 합의 단순평균

- 일반적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내수비중도 커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비중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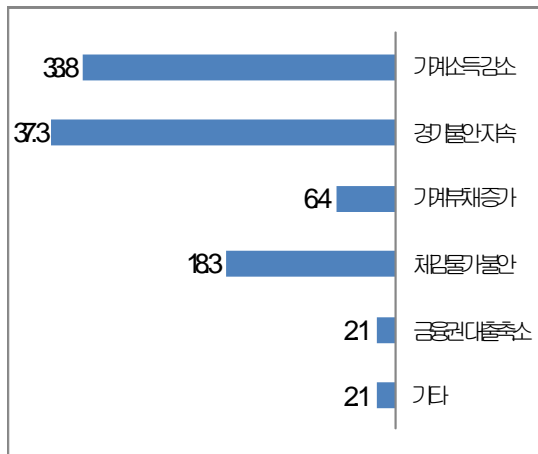
II. 내수부진의 원인

소비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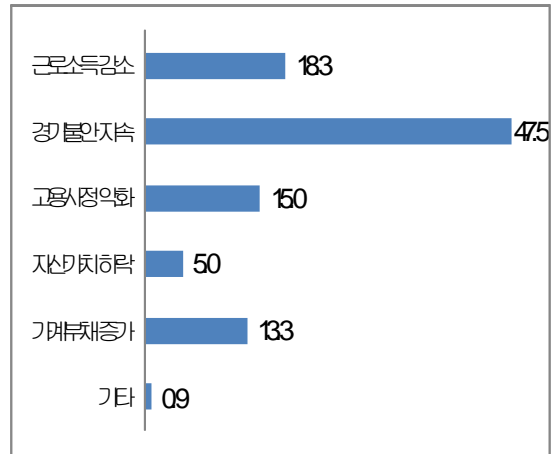
□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비부진의 주요 원인

- 대한상의 조사³⁾에 따르면 2009.2/4분기 소비실적과 2009년 하반기 소비전망에서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한 주요 이유는 가계소득 감소보다는 경기불안 지속을 가장 많이 지목함

<그림4> 1분기 對 2분기 소비축소 이유(%)



<그림5> 상반기 對 하반기 소비축소 이유(%)



* 자료 : 대한상의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⁴⁾도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소비회복을 가로막는 핵심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2) 경제부문별 가격기준은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등 26개국은 자국기준 연쇄가격을 멕시코는 불변가격, 미국, 영국, 포르투갈은 OECD 기준년도 실질가격(Volume Estimates)으로 측정하였음.

3) 대한상의, 가계의 소비부진 인식조사(2009.6)

4) 삼성경제연구소, “장기적 소비부진의 원인분석”(08.8)

□ 고용사정의 악화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이 축소되고 있음

- 2009년 5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만 명 감소하는 등 일자리 창출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가계소득 창출능력이 축소되고 이는 곧 소비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 취업자수(만명, 전년동월비): -10.3(09.1)→ -14.2(2월)→ -19.5(4월)→ -18.8(4월)→ -21.9(5월)
* 도시근로자가구 실질소득증가율(% , 전년동기비): 2.1(08.3/4)→ -0.9(4/4)→ -3.7(09.1/4)
* 소비재 판매(% , 전년동월비) : -3.3(09.1)→ -6.1(2월)→ -5.2(4월)→ -4.0(4월)

- 우리나라 경제구조도 IT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非노동집약적으로 전환되면서 산업 전반의 고용흡수력이 저하되고 있음

<표1>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단위 : 명/10억원, %) 증감률		
					'00~'05	'05~'06	'06~'07
농 립 어 업	52.7	42.6	41.5	39.3	-4.2	-2.6	-5.3
광 업	5.8	5.4	5.3	5.8	-1.4	-1.9	9.4
제 조 업	4.4	3.4	3.2	3.0	-5.0	-5.9	-6.3
건 설 업	10.1	10.5	11.1	10.7	0.8	5.7	-3.6
서 비 스	15.9	13.1	12.9	12.8	-3.8	-1.5	-0.8
전 산 업	10.9	8.7	8.4	8.2	-4.4	-3.4	-2.4

* 자료 : 한국은행,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09.7)

□ 稅부담 및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가계의 소비여력의 약화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0년 19.6%에서 2007년 22.7%로 3.1%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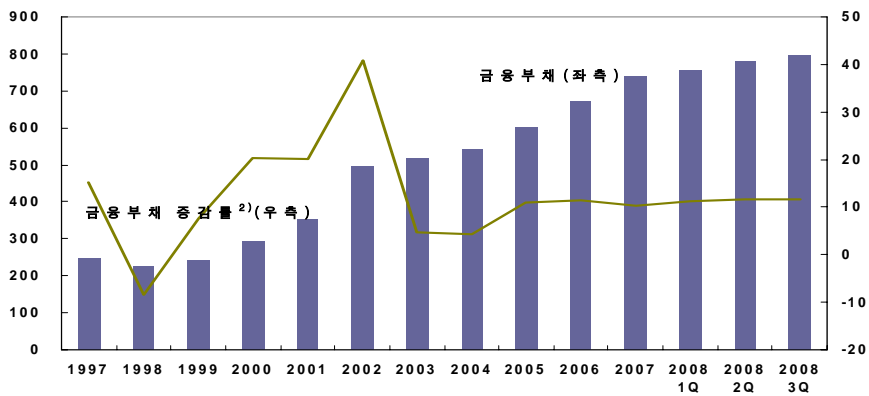
<표2> 조세부담률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상GDP		578.7	622.1	684.3	724.7	779.4	810.5	848.0	901.2
조세	계	113.5	122.5	135.5	147.8	152.0	163.4	179.3	205.0
	(조세부담률,%)	19.6	19.7	19.8	20.4	19.5	20.2	21.1	22.7
	국세	92.9	95.8	104.0	114.7	117.8	127.5	138.0	161.5
	지방세	20.6	26.7	31.5	33.1	34.2	36.0	41.3	43.5

* 자료 : e-나라지표

-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 규모는 2008년 9월말 797조원(가계신용 676조 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3배 이상 확대
- 2000년대 초반 30%에 가까운 가계부채 증가율은 신용카드 위기를 계기로 급락하였다가 2005년 이후 최근까지 매년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6> 가계부문 금융부채 추이(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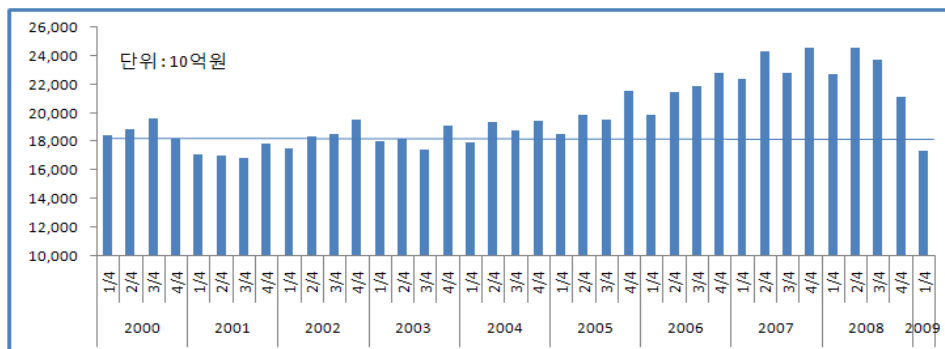
- * 주 : 1) 2002년 이전은 1968 SNA 기준, 2002년부터는 1993 SNA 기준
- 2) 2008년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 자료 : 대한상의,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09.3)

투자부진

□ 설비투자의 위축으로 인해 생산활동으로 자금유입이 급감

- 2009년 1/4분기 설비투자 규모는 200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림7> 설비투자금액 추이(실질기준)



- * 자료 : 한국은행

□ 설비투자 부진원인1 : 경제 구조적인 문제

- (해외직접투자 확대)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실시간 경영이 가능해지면서 기업들이 소비시장 중심의 현지 직접투자가 늘었고, 인건비가 저렴한 신흥시장 투자에 나서면서 국내 투자의 위축이 발생
-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90년대 후반 한해 평균 20억불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7년, 2008년 각각 81억불, 68억불을 기록하는 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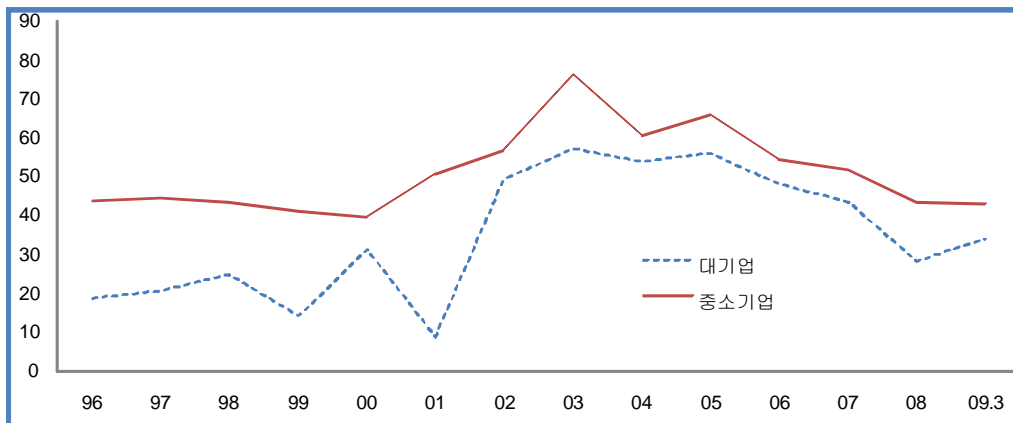
<표3>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억불)

95~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3월
20.8	38.5	18.2	24.0	37.2	36.8	54.5	80.7	67.7	9.1

* 자료 : 수출입은행

- 중소기업들이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투자부진의 한 요인

<그림8> 대·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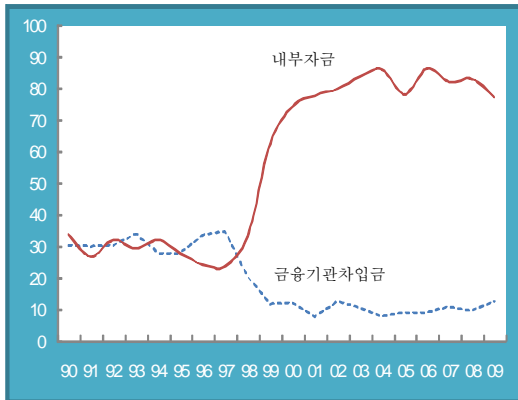
* 자료 : 산업은행

- (기업의 투자행태 변화)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외형위주에서 탈피하는 경영행태를 보여 이전과 같은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외환위기 이전 국내기업들은 유망 사업으로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 대규모 외부차입금을 이용한 공격적 설비투자를 시행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

후 내실위주의 경영을 보다 중시하며 투자기조가 보수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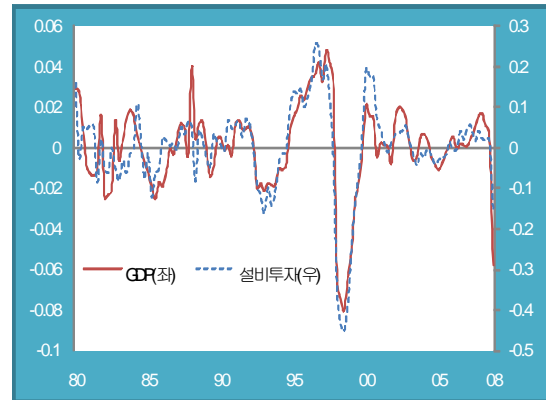
-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수익성을 보다 중요시함에 따라 투자와 경기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9> 설비투자 재원조달 비중(%)



* 자료 : 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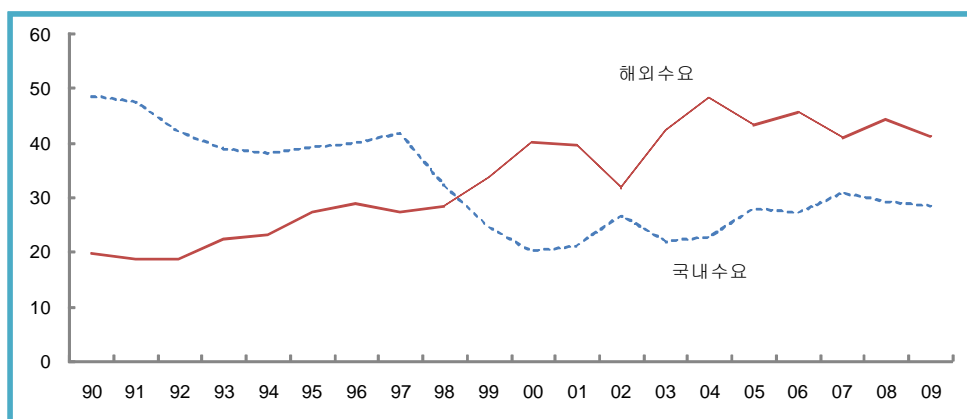
<그림10> 경기변동과 설비투자 변동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국내수요의 부진) 2000년대 들어 수출부문의 호조로 수출수요를 위한 설비투자는 늘었지만, 내수시장 위축으로 국내수요를 위한 투자는 줄어들었음
- 전체 설비투자에서 수출수요를 위한 설비확대는 90년대 평균 24%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42%로 확대
- 반면 국내수요를 위한 설비확대는 90년대 평균 41%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국내수요 약화에 따라 26%까지 떨어졌음

<그림11> 설비투자에서 국내와 해외수요가 차지하는 비중(%)



* 자료 : 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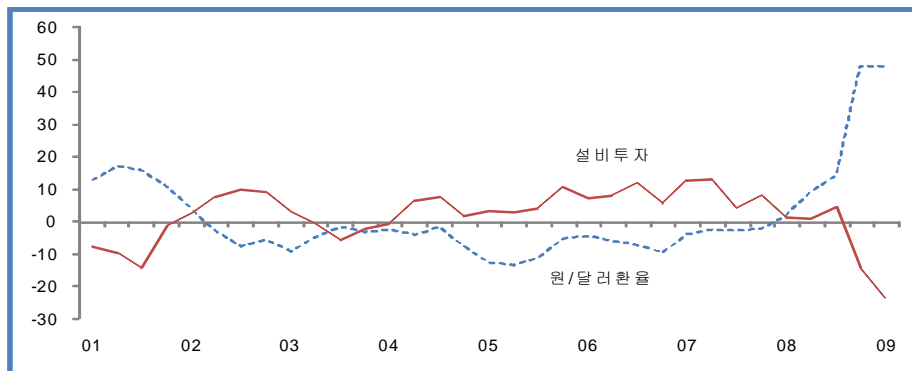
□ 설비투자 부진원인 2 : 최근의 경제위기

- 내수, 수출의 동반부진 지속과 미래 불확실성 증대로 설비투자 위축됨
 - 사상 유례 없는 세계경제 동반침체로 내수는 물론 해외 수요가 급감하였고 현재의 생산시설도 부분적으로 과잉상태임
 - 또한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현재의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미래 경기 회복 전망이 불확실하여 투자를 망설이게 함

* 최근 상의 조사('09. 6월)에 따르면 작년 실적대비 올해 상반기 투자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61%가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감소와 기존 설비과잉을 들었고, 14%는 경기전망의 불확실성을 지적하였음

-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보수적 경영기조를 보이고 있고, 일부 대기업은 인수합병 목적으로 신규투자를 지양
 - 최근 기업들이 경제 침체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는 등의 보수적 경영 또한 투자 부진 원인으로 작용
 - 일부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은 하반기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수합병을 위한 목적임
- 환율 상승으로 투자비용의 부담 확대
 - 금년 초 환율이 급등하여 기계 및 운수장비의 원화표시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것도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축소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

<그림12> 설비투자와 원·달러환율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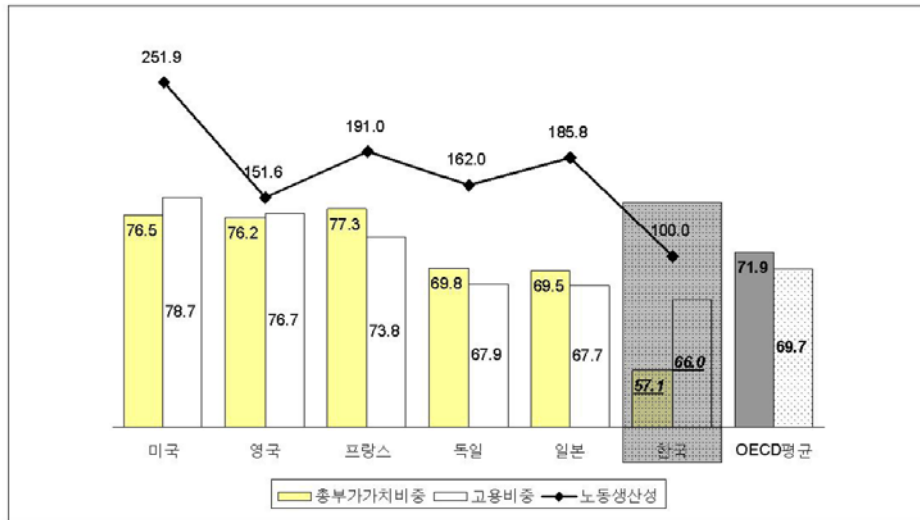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서비스산업 취약5)

□ 서비스산업 비중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서비스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등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7년 기준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66.7%로 2000년 61.2%에 비해 5.5%p 증가하였고, 부가가치 비중도 같은 기간 3.2%p 증가하는 등 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 그러나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7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차이가 많음. 고용측면에서도 OECD 국가와 차이

<그림13> 서비스산업 국제비교(% , 2006년 기준)



* 주 : 노동생산성, 한국 = 100 기준

* 자료 : OECD in Figures 2008, 노동연구원

□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5) 전경련,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재인용(09.5)

-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는 '90년 이후 연평균 9%에 달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는 1%에 그치면서 두 산업간의 격차가 확대

<표4> 노동생산성 추이(천원, %)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전산업	16,185	20,396	24,298	28,176	29,213	30,292	3.8
제조업(A)	14,157	21,436	35,230	49,285	54,325	58,520	8.7
서비스업(B)	18,913	20,620	21,578	22,692	23,041	23,615	1.3
(B/A, %)	133.6	96.2	61.2	46.0	42.4	40.4	

* 자료 : 전경련

- 이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이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서비스산업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국내 취업자의 2/3를 차지하는 취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내수 성장에 걸림돌이 됨

<표5> 서비스 업종별 고용 부가가치 비중('05년,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고용	부가가치	고용	부가가치	고용	부가가치	고용	부가가치
도소매·음식숙박	26.3	9.8	21.4	13.1	24.2	14.5	19.8	12.2
운수·창고·통신	6.2	7.3	4.8	5.6	5.9	7.1	5.4	5.9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	12.1	20.9	19.5	32.2	19.5	31.7	16.2	29.3
공공서비스(행정·국방)	3.4	6.3	8.4	8.7	6.4	4.8	7.0	6.0
교육·보건·기타서비스	16.0	12.0	24.7	16.5	23.8	17.8	21.2	16.4

내수부문의 경제성장기여도 하락

□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내수가 우리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내수부문의 성장기여도는 70~80년대 7~8%p 수준에서 2000년대 들어서면

서 3%p대로 떨어짐

- 대신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70~80년대 약 2%p에서 2000년대 4%p로 크게 상승함

<표6>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및 성장기여율(%p, %)

	71~79	80~89	90~99	90~97	00~08
경제성장률	8.3%	7.7%	6.3%	7.5%	4.8%
-민간소비	4.6(55.5)	4.2(54.7)	3.2(42.8)	4.2(56.1)	2.3(47.9)
-설비투자	1.5(17.9)	0.8(10.1)	0.7(9.6)	1.2(16.3)	0.6(12.4)
-건설투자	1.6(19.7)	1.5(19.5)	1.3(17.9)	2.1(28.2)	0.4(9.0)
-수출	1.8(21.9)	1.9(24.3)	3.3(43.8)	3.0(39.9)	4.0(81.5)

* 주 : 각 변수는 국민계정 2000년(1971~2000)과 2005년(2000~2008) 가격기준. 내수는 민간소비지출과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소비는 민간소비지출, 투자는 총고정자본형성 의미함. 괄호 ()안은 부문별 성장기여율

*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Ⅲ. 내수부진의 문제점

경기변동성 확대

□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기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됨

-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각 항목별 분기성장률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변동성을 측정해 본 결과 우리나라 GDP 변동성은 지난 90~97년 2.0%에서 2000년대(2000.1/4분기~2009.1/4) 들어서면서 2.9%로 확대됨
-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2008년 4/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OECD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 OECD 30개국의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아일랜드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7.1%로 회원국내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한국이 마이너스 5.1%로 두 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음
- 그러나 금년 1/4분기는 지난해 4/4분기 대비 0.1% 성장을 기록해 OECD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성장을 기록함

<표7> OECD 국가 경제성장률(% , 전분기대비)

	2008-1Q	2008-2Q	2008-3Q	2008-4Q	2009.1Q
Australia	0.8	0.3	0.2	-0.6	0.4
Austria	0.6	0.2	0.0	-0.4	-2.6
Belgium	0.4	0.3	0.0	-1.7	-1.7
Canada	-0.2	0.1	0.1	-0.9	-1.4
Czech Republic	-0.1	1.2	0.6	-1.8	-3.4
Denmark	-1.2	0.3	-0.8	-1.9	..
Finland	0.7	-0.4	-1.0	-2.1	-2.7
France	0.4	-0.4	-0.2	-1.5	-1.2
Germany	1.5	-0.5	-0.5	-2.2	-3.8
Greece	0.9	0.9	0.4	0.3	-1.2
Hungary	0.9	-0.3	-0.9	-1.8	-2.5
Iceland	-1.6	-1.6	2.9	-0.9	-3.6
Ireland	-1.0	-0.4	1.1	-7.1	..
Italy	0.5	-0.6	-0.8	-2.1	-2.6
Japan	0.4	-0.6	-0.7	-3.6	-3.8
Korea	1.1	0.4	0.2	-5.1	0.1
Luxembourg	-1.0	0.3	-0.3	-4.5	..
Mexico	1.2	0.2	-0.6	-2.5	-5.9
Netherlands	0.9	-0.1	-0.5	-1.2	-2.8
New Zealand	-0.3	-0.2	-0.5	-0.9	..
Norway	0.4	0.1	-0.8	0.8	-0.4
Poland	1.1	0.7	0.7	0.0	0.4
Portugal	0.2	0.2	-0.5	-1.8	-1.6
Slovak Republic	-3.3	1.9	1.8	2.1	-11.4
Spain	0.4	0.1	-0.3	-1.0	-1.9
Sweden	0.4	0.0	-0.5	-5.0	-0.9
Switzerland	0.4	0.0	-0.2	-0.6	-0.8
Turkey	1.9	-2.5	-1.5	-3.8	..

United Kingdom	0.3	0.0	-0.7	-1.6	-1.9
United States	0.2	0.7	-0.1	-1.6	-1.4

* 자료 : OECD

□ 경기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내수부문의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됨

- 민간소비 변동성은 90년대(90~97년) 2.3%에서 3.8%(2000~2009.1/4)로, 설비투자는 13.0%서 14.5%로 확대됨
- 건설투자의 변동성은 10.0%에서 4.6%로 축소되었지만 변동계수가 96.3에서 191.6으로 2배가량 증가해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음
- 수출은 90년대 7.4%에서 2000년대 9.3%로 확대되었지만 변동계수를 비교해 보면 내수부문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8> 경제부문별 변동성 추이(%)

	71~79	80~89	90~99	90~97	00~09.1Q
GDP 변동성	3.6(42.6)	4.0(51.5)	4.8(76.8)	2.0(26.8)	2.9(63.1)
-민간소비	2.2(31.9)	2.9(40.5)	6.8(121.2)	2.3(30.8)	3.8(95.3)
-설비투자	29.1(103.4)	14.0(158.8)	22.3(298.4)	13.0(129.5)	14.5(255.0)
-건설투자	22.0(147.6)	10.2(108.2)	11.8(175.0)	10.0(96.3)	4.6(191.6)
-수출	21.0(88.3)	9.6(82.1)	7.1(50.0)	7.4(51.5)	9.3(87.3)

* 주 : 경기변동성은 각 부문별 분기증가율의 표준편차. ()는 변동계수($\frac{\text{표준편차}}{\text{증가율평균}} \times 100$)

* 자료: 한국은행

성장동력의 약화

- 우리경제는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90년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6%대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4%대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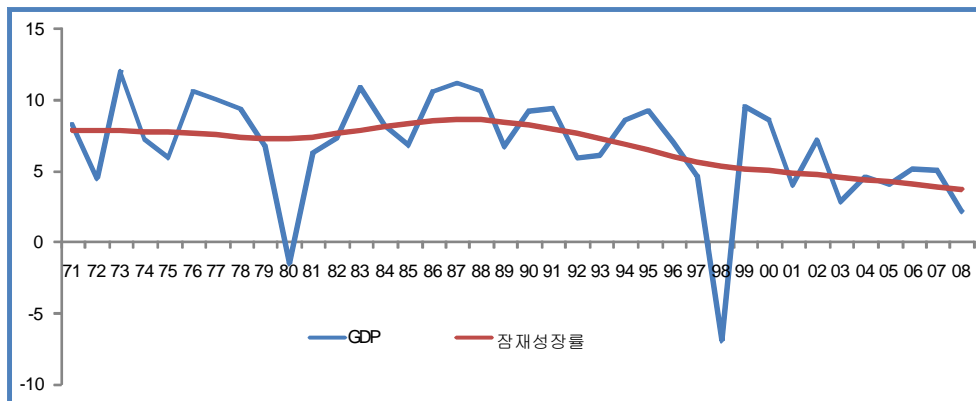
<표9>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 및 전망결과(%)

기간	잠재성장률 (a+b+c)	노동투입 (a=1+2)	노동투입 구성		자본투입 (b)	총요소 생산성(c)
			취업자 (1)	근로시간 (2)		
82~90	8.6	1.1	1.5	△0.4	4.4	2.9
91~00	6.3	0.7	1.0	△0.3	3.7	1.8
01~05	4.4	0.6	0.8	△0.3	1.5	2.3
06~10	4.9	0.4	0.7	△0.3	2.3	2.1
11~20	4.3	△0.1	0.3	△0.4	2.2	2.1
21~30	2.8	△0.7	△0.4	△0.3	1.6	1.9

* 자료 : 비전2030 수립을 위한 기초분석보고서

-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이 3%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민간연구기관에서 제시하고 있음⁶⁾
- 최근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 성장잠재력 약화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음

<그림14>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추정



* 주 : 잠재성장률은 HP-filtering 통해 계산함

* 자료 : 한국은행

6) 기획재정부, 위기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여부(09.7)

□ 내수부진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는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음

- 선진경제 이행 기간에서 G7 국가들의 성장 특징은 소비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며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내수부분이 취약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⁷⁾
- 아울러 G7 국가들의 경우 선진경제 이행기 동안의 수출과 수입증가율은 각각 4.9%, 6.4%로, 동 기간의 경제성장률인 3.1%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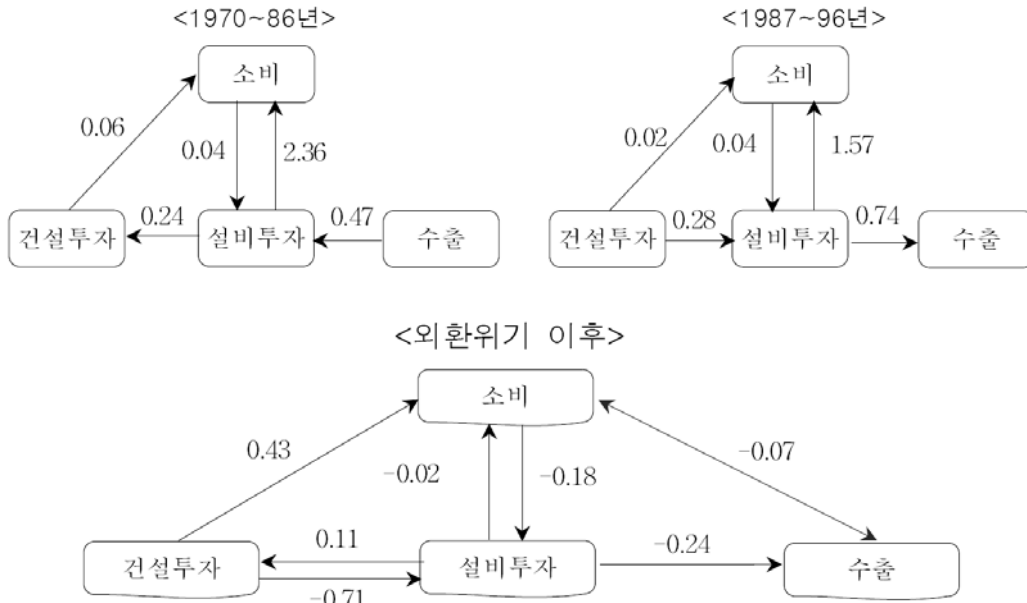
IV. 정책과제

수출-내수의 선순환구조의 복원

- 수출을 줄이고 내수위주의 경제로 가야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호조가 내수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구조가 복원이 되어야 함
 - 그동안 수출은 우리 경제서장에 많은 기여를 해 왔고 지금도 그 중요성은 변함이 없음. 따라서 높은 수출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외환위기 이후 수출호황이 내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함

7) 현대경제연구원

<그림15> 외환위기 전후의 내수와 수출 인과관계 변화



* 주 : 1) 거시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는 Granger-causality를 표시한 것으로 $x \rightarrow y$ 는 x 에서 y 로의 인과관계 즉 현재의 y 가 과거의 x 값에 의해서 설명됨을 의미
 2) 화살표 위의 숫자는 인과성의 크기로 VAR의 시차 설명변수들 계수의 값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 르네상스를 위한 구상(07.7세미나자료)

□ 수출-내수 선순환구조 복원을 위해 중간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여 해외 수요를 국내수요로 전환해야 함

- 2007년 중간투입물의 국산화율은 77.2%로 2000년 77.0%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표10> 중간투입률 및 중간투입 구성 추이(조원,%)

	2000		2005		2006		2007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중간투입	793.3	57.0	1,216.8	58.8	1,308.6	59.4	1,436.2	59.9
국산	610.7	43.8	951.8	46.0	1,021.1	46.4	1,109.2	46.3
수입	182.6	13.1	265.0	12.8	287.5	13.0	326.9	13.6
국산화율	77.0		78.2		78.0		77.2	

* 주 : 국산화율 = (국산 중간투입액/중간투입총액)×100
 * 자료 : 한국은행, 2007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

-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입중간재가격 상승의 영향이 있지만 기초소재, 전기전자 등의 산업은 국산화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표11> 산업별 국산화율(07년 기준)

소비재	기초소재			조립가공	일반기계	전기전자
		화학제품	1차금속			
80.7	63.2	73.8	72.4	73.8	87.7	60.5

-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고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서비스산업의 육성

□ 일자리를 늘리고 수출을 대체할 새로운 분야로 서비스산업에서 우리경제의 활로를 모색해야 함

- 서비스부문에 대한 개방과 경쟁촉진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서비스 분야 R&D 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임
 - 개방을 통해 선진노하우 전수, M&A 등이 활성화되면 국내 서비스기업의 대형화, 경영능력 제고 등 경쟁력이 높아질 것임
-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제도 역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稅부담, 전력가스이용료, 교통유발환경개선부담금 등 준조세,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서 차별

* 토지보유세 : 공장(재산세 0.2%, 종부세 면제), 호텔(재산세 0.2-0.4%, 종부세 0.5-0.7%)
* 전력 기본요금(kW당) : 제조업(산업용 4,190원), 서비스업(일반용 5,160원)
* 도시가스 요금(m³ 당) : 제조업(산업용 579.63원), 서비스업(일반용 598.92원)

가계의 소비여력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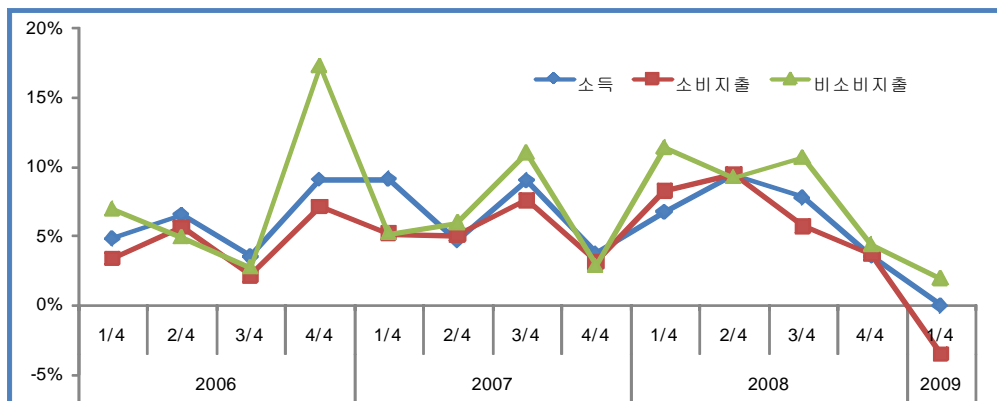
□ 노동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고용여력을 높여 주어야 함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연장하여 고용시장이 안정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다양한 고용형태를 인정하여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32개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근로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대출금 상환,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성지출의 증가율이 소비지출을 능가하지 않도록 각종 稅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

-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비소비성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가계의 소비를 제한하고 있음.

<그림16>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KOKIS

경기확장적 정책기조의 유지

□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유지

- 최근 경기하락세가 진정되고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소비, 투자 등 민간부문의 자생력은 여전히 약하기 때문임
- 금년 상반기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이 경기급락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였음

<표12> 성장에 대한 정부기여도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GDP성장률(%)	5.1	2.2	5.5	4.3	3.1	-3.4	-4.2
정부기여도(%p)	0.9	0.5	0.2	0.5	0.6	0.6	1.9

* 자료 : 한국은행

□ 감세정책 기초의 유지를 통한 내수진작

- 2008년 말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30%)과 지난 5월 노후차량 교체수요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70%)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
- 따라서 2010년 예정된 소득세 인하 및 법인세 인하시 소비와 투자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p>*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08년 12월 26일 법인세법 개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표 1억원 이하 13('07) → 2억원 이하 11('08) → 10('10~) · 과표 1억원 초과 25('07) → 2억원 초과 25('08) → 22('09) → 20('10~)
<p>* 정부의 종합소득세율 인하 정책('08년 12월 26일 소득세법 개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표 1,200만원 이하 8('08) → 6('09~) · 과표 4,600만원 이하 17('08) → 16('09) → 15('10~) · 과표 8,800만원 이하 26('08) → 25('09) → 24('10~) · 과표 8,800만원 초과 35('08) → 35('09) → 33('10~)

투자확대를 위한 정책노력 지속

□ 입지 및 환경분야 규제완화

- 그동안 정부가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입지와 환경분야에서 개선되어야 과제가 남아 있음

-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증설 제한 : 공장부지 6만㎡초과 금지, 3만㎡이상은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첨단업종 등만 3천㎡이내에서 신증설 허용
- * 농업진흥지역내 소재 기존공장 증설 제한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를 제한. 현재 전체 178만ha 농지중 88만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 수도권내 사업장은 대기오염배출에 대한 농도규제와 총량규제를 동시에 적용받아 공장 신/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속상각제도 도입 등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업의 투자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09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므로 추가적으로 연장되어야 함

-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연구개발업, 개인서비스업 등이 기계장치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 또는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2009년 일몰)

- 녹색산업 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속상각제도’를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에너지절약시설이나 환경보전시설에 한해서라도 취득 첫 해 75%가량의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제도를 우선 실시한다면 효과적인 것

- * 가속상각제도 : 법정기간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 세무상 감가상각을 허용함으로써 설비투자 초기에 과세대상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 지급액을 줄여주는 제도
- * 홍콩은 폐기물 처리 플랜트 등 환경 친화적 설비에 투자하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며, 일본도 2011년까지 에너지수급구조 개혁추진 설비에 투자하면 취득 첫 해 100% 상각하는 것을 허용

건설경기의 정상화

□ 건설경기는 경제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효과가 큼

- 국내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3년 7.1%에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3%까지 하락.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높음

<표13>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명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2	6.4	6.4	7.1	7.0	6.9	6.8	6.7	6.3

* 자료 : 한국은행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우선 부동산 실수요를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주택수요 활성화시키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 재도입
- 소형에서 중형, 중형에서 대형으로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장가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 주택구입용 대출자금의 원리금 상환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늘려주는 방안 등의 조치가 검토되어야 함

□